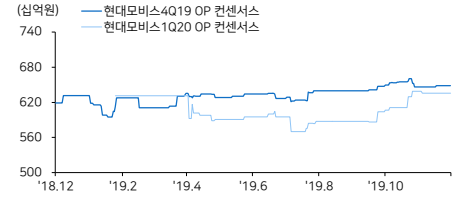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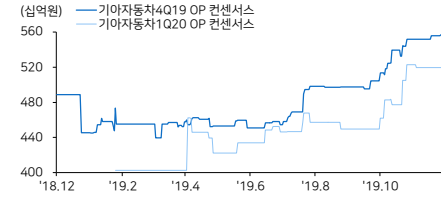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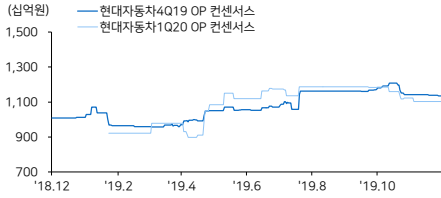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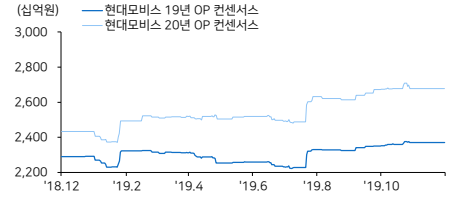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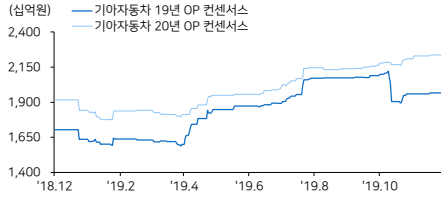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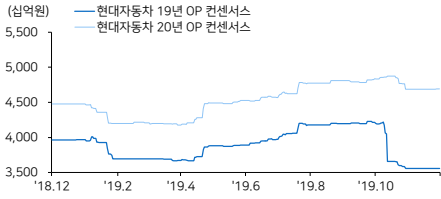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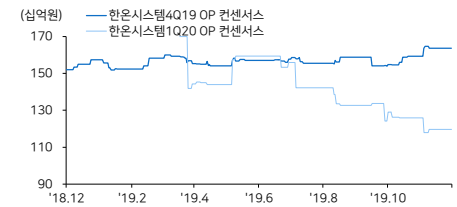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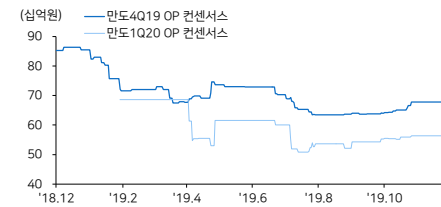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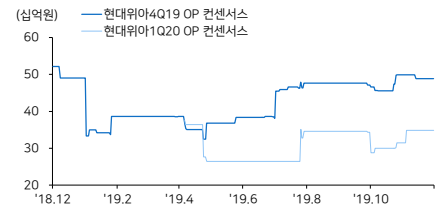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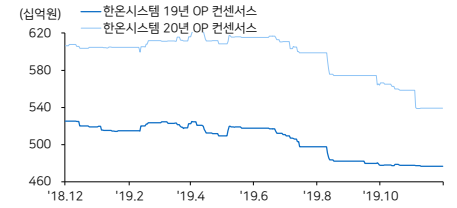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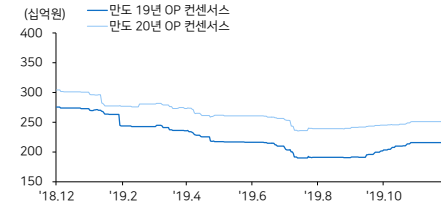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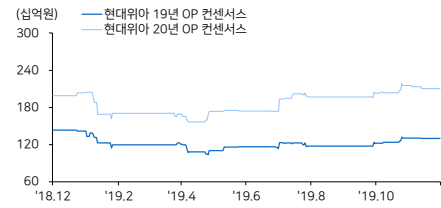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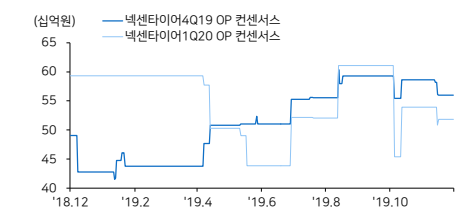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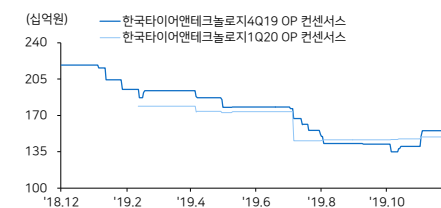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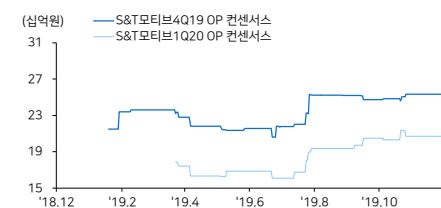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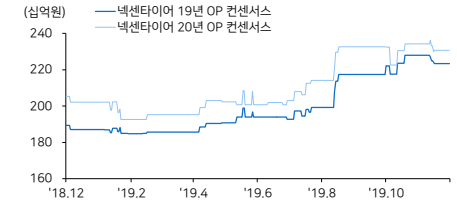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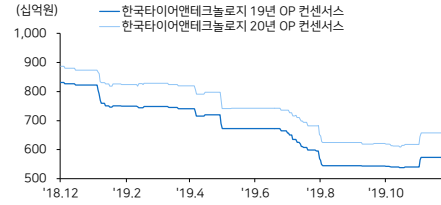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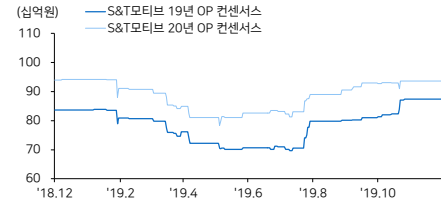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인도네시아, 현대차에 바라는 건 공장 이상이다 (쑤이스경제)
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최초의 현지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세우면서 일본자동차 일색의 시장 공략에 나서지만 현지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대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.
<https://bit.ly/20Es50A>

현대차 배뉴, 인도서 대박...출시 6개월, 5만대 이상 팔려 (글로벌이코노믹)
현대차 인도법인인 올에 4월 출시된 배뉴가 10월까지 5만1257대가 판매됐다고 30일(현지시간) 밝혔. 그동안 배뉴는 월 평균 8542대가 판매됐고, 가솔린(2만9726대)과 디젤(2만1531대) 모두 고른 판매세를 기록.
<https://bit.ly/2P1CmH>

신형 K5, '美·澳·韓' 자동차 전문 매체 시선 집중 (더팩트)
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전문 매체들의 시선이 기아차의 'K5'를 향함. 미국 자동차 전문지 '카엔드라이버'와 영국 '오토카', 독일 '아우토티트'와 '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' 등 다수 글로벌 자동차 전문 매체에 최근 신형 K5의 출시 소식을 다룸.
<https://bit.ly/2qak3mB>

베일벗은 현대차 AI 비밀조직 '미래엔 차만 팔지 않아' (중앙일보)
김정희 인공지능연구소 실장은 현대차가 네이버에서 영입해온 인재로, 현대차에서 차+AI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. 그는 "애플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경쟁력을 갖는 게 현대차그룹 인공지능(AI) 연구의 목표"라고 말함.
<https://bit.ly/2R8x2Ac>

제네시스 GV80,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출시 연기...12월 19일에 나온다 (조선비즈)
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SUV GV80 출시가 연기된 이유는 이 차에 탑재되는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 인증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남. 현대차그룹은 신속히 인증 문제를 마무리해 다음달 19일 GV80을 출시할 계획.
<https://bit.ly/2DyZ8wv>

현대차, 인니서 온라인판매로 일본차와 승부...하이브리드도 검토 (연합뉴스)
일본차가 꼭 잡고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현대차가 내놓은 차별화 전략은 전용 모델, 온라인 판매. 현대차는 30일 인도네시아 빅3 온라인 유통업체 중 한 곳과 제휴를 맺고 자동차를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힘.
<https://bit.ly/2Y4ft5X>

현대차, '부르덴 달력'인 '버스 시범 서비스 개시 (RPM9)
현대차가 인천시의 함께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동 편의성 향상에 앞장섬. 현대차는 인천광역시와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수요응답형 버스 '1-MOD 시범 서비스'를 개시했다고 밝힘.
<https://bit.ly/3405e2p>

현대차, '강성노조' 시대 끝내나...지부장 선거 '실리'성향 후보 1위 (데일리안)
지난달 28일 진행된 제8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선거에서 실리·중도 성향의 후보가 1위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4년간 이어온 현대차 강성노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림.
<https://bit.ly/2r1Ydu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